

다큐멘터리사진에 있어서 셀프 포트레이트에 관한 연구  
 - 비비안 마이어(Vivian Maier) 사진을 중심으로 -  
 Review of the self portrait of Vivian Maier /  
 From a documentary photographic view

김 태 웅\*, 양 종 훈\*\*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박사과정  
 (합동참모본부 공보실 공보지원담당장교)\*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

Kim tae-woong\*, Yang jong-hun\*\*

Doctoral Student(Joint Chief of Staff Public  
 Affairs Media support officer)\*,  
 Professor of Sangmyung Univ.\*\*

## 1. 작품 이미지



## 2. 작품 설명

셀프 포트레이트 사진에 등장하는 비비안 마이어(Vivian Maier)는 대다수 무표정한 모습이다. 피사체를 투영할 수 있는 반사체에 무표정한 모습을 담아 빛과 구도를 절묘하게 조화시켜 작품으로 승화시켰다<sup>1)</sup>. 특히

이 사진은 구도 측면에서 사진작가의 팔의 각도가 그려는 선과 어린아이의 머릿결이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를 보여준다. 이로 인해 거울에 투영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묘한 안정감과 입체감을 준다.

이 사진은 비비안 마이어가 소녀와 거리를 배경으로

1) "Finding Vivian Maier Is a Fascinating Tale of the

Street Photographer", The Village Voice. Accessed 7 August 2014.

‘셀프 포트레이트’를 촬영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진의 주인공은 사진작가 내면의 시선으로 거울을 바라보는 소녀이며, 사진가의 세계관과 동일시되어 또 다른 ‘작가나’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진은 그녀가 유모로서 돌보았던 ‘소녀’를 통해 자신의 시선과 감정선을 처리한 사진인 것이다. 의식이 없어 보이는 그녀의 표정과 어리지만 냉정히 현실을 바라보는 소녀의 눈빛에서 사진가는 사진기 셔터를 눌러 물질적인 개체로 전이되고, 마치 그 순간 소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느낄 수 있다. 소녀의 눈빛에서 작가 비비안 마이어의 내면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사진을 찍는 그 찰나의 순간, 자신이 원하는 존재로,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그려낸 것이다. 셀프 포트레이트 이외의 사진에서도 그녀가 촬영하는 다양한 대상이 매우 다채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자신 내면에 숨겨진 감정과 표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 3. 작품 평론

수많은 비비안 마이어 사진의 1/3은 ‘셀프 포트레이트’로 알려져 있다<sup>2)</sup>. 지금까지 공개된 그녀의 사진 중 가장 주목받는 사진도 셀프 포트레이트의 비중이 크다. 사진에 등장하는 그녀의 표정은 놀라우리만큼 무표정하다. 그녀의 실제 직업은 아이를 돌보는 보모였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눈빛은 찾아볼 수 없고 사진 촬영을 위한 직업의식만 돋보인다. 그 어떤 훌륭한 사진작가의 사진만큼 그녀의 사진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다. 당시 생활상과 풍속,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과 따뜻한 시선도 보인다. 특히 미스터리의 베일에 싸여 있는 그녀가 살아왔던 삶과 주변 환경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 속에서 사진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sup>3)</sup>.

‘거리의 작가’로서 단 한 사진도 대중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약 17만장이라는 필름을 통해 수많은 사진을 남겼다. 보모라는 직업보다는 사진가로서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활동을 했지만 세상에 알리기보다는 세상을 촬영하는 자체에 만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녀는 자신의 세계관과 감정을 사진에 투사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했다. 본인은 늘 무표정하게 촬영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을 사진에 담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표정 안에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비비안 마이어는 유년시절 부모로부터의 사랑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의 외면 받았으며, 보이고 보이지 않았던 폭력과 학대 속에서 고통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녀와 삶의 일부분을

함께 했던 주변인들도 한 목소리로 ‘제정신이 아니다’, ‘괴기하다’, ‘병적으로 수집한다’, ‘세상과 동떨어진 외톨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sup>4)</sup>.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결정짓는 이름조차도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심지어 출생지까지 속이기기 위해 프랑스 억양까지 억지로 꾸며 사용했다. 이러한 그녀의 행적, 그리고 각종 악성사고 뉴스 수집과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려와 마치 형사처럼 취재하는 모습은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했음을 방증한다.

비비안 마이어의 셀프 포트레이트에 등장하는 그녀 자신은 철저히 냉정하고 금욕적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시선처리를 보여준다<sup>5)</sup>. 사진 속 그녀와 마주하면 구속된 자아로 인해 작은 미소조차 지을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그녀를 제외한 피사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표정과 감정을 담고 있는데, 마치 과거의 고통과 상처로부터 해방되고 세상으로부터 소통의 끈을 잡아 내면으로 이어가고 싶어 하는 욕망,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사진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사진에는 어린 시절 상처받아 위축되었던 모습의 기억을 지우고, 다시 소녀로 돌아가 완전한 여성이 되어 있는 지금의 ‘나’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작가의 희망이 표현되어 있다. 비비안 마이어의 냉정함과 그녀가 표현하고자하는 내면의 따듯함을 사진에 담긴 두 피사체를 통해 동시에 하나의 존재로서 강렬하게 느낄 수 있다.

2) 네이버 블로그(Naver Blog), ‘비비안 마이어-매력적인 거리사진을 찍었던 무명 포토그래퍼’

<https://blog.naver.com/pandacube/221233715777>, 2018. 3. 21.

3) "Nanny Strangest: On "Finding Vivian Maier", The Wall Street Journal. 7 August 2014

4) John Maloof, Charlie Siskel dir. Finding Vivian Maier. Film. 2003. 83 min.

5) "A Mystery Woman's Eye on the World: A Documentary Looks at the Photographer Vivian Maier", The New York Times. 7 August 2014.